

대화에서의 중단: 본인의 성,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의 영향

장 휘 숙

최 영 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단을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으로 구분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친밀한 정도가 두가지 유형의 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x2x2 요인설계를 사용하여 108명의 대학생들을 8개 집단에 할당하고 실험실에서 10분 동안 주어진 주제를 토론하게 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설정된 9개의 가설(침입적 중단-5개, 촉진적 중단-4개)을 검증하였다.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부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남성들은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더 많은 부정적 중단을 사용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고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낮은 조건이나 친밀한 조건 모두에서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의 진행을 돕는 긍정적 중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더 많이 사용되며, 특히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주요어 : 대화, 중단, 부정적 중단, 긍정적 중단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이한 언어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장휘숙, 2002; Basow & Rubenfeld, 2003),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표현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관계나 친밀성을 표현하는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대조적으로 남성들은 자기주장적이고 우월함을 반영하는 소위 지위와 독립을 표상하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Tannen(1990)을 포함하는 서구의 여러 연구자들은 남녀가 서로 다른 사회화 방식에 노출된 결과로 상이한 의사소통 양식을 발달시킨

다고 주장하고 일찍부터 남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의 개인차에 관해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도 대부분 문헌이나 속담 혹은 광고 등에 나타난 남녀의 언어패턴을 연구하거나 (박창원, 김창섭, 전해영, 차현실, 1994) 아니면 부부갈등의 원인문제로서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김순옥, 유정희, 1996; 류경희, 1994; 송성자, 1985; 이정순, 박성연, 1991).

남녀의 언어사용 패턴 중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화자의 말과 중복되는 발성을 하는 소위 중단(interruption)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한 사람의 발언이 끝나갈 무렵에 이르면 화자는 비언어적 단서나 음색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언이 끝났음을 신호하고 거기에 맞추어 시간간격을 두거나 중복됨이 없이 다른 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발언권을 가진 화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대화의 차례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화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단이란 화자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대화상대자가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동시발생적인 발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자들간의 대화차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Zimmerman & West, 1975). 문제는 단어나 구, 절 혹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화자와의 동시발생적 발성은 그 내용에 따라 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자주 다른 이름으

로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단에 관해 최초로 연구한 Zimmerman과 West(West & Zimmerman, 1983; Zimmerman & West, 1975)는 중단을 방해적 발성과 비방해적 발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방해적 발성은 화자가 자신의 대화차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대화상대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여 화자의 말이 끝나고도 계속됨으로써 대화의 구조를 파괴시키고 화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조적으로 비방해적 발성은 발언권을 가진 화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혹은 이야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는 동시발생적 발성으로 “그레”, “그렇지”, “음”과 같이 강조하는 발성이나 동일한 내용을 화자와 동시적으로 발성하는 것으로 Tannen(1994)같은 연구자는 이것을 중복(overlap)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자가 화자를 무시하고 대화의 발언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후자는 대화를 촉진시키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청하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Smith-Lovin과 Brody(1989)나 Johnson(1994)같은 연구자는 중단의 내용을 기초로 지지적 혹은 긍정적 중단과 부정적 중단 및 중립적 중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지지적, 긍정적 중단은 화자에게 동의나 지지를 표현하거나 화자의 말을 반복하기 혹은 화자의 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발성에 해당하는 반면, 부정적 중단은 화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를 표하기 위한 발성 혹은 관련 없는 주제를 말함으로써 화자를 무시하는 발성에 해당한다. 한편 중립적 중단은 너무 짧아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내용에 대한 평가 없이 주제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거

나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발성에 해당한다. 한편 중단에 관한 43개의 연구를 개관하고 통합분석을 실시한 Anderson과 Leaper (1998)는 비방해적 발성을 유친적 중복으로 그리고 방해적 발성을 침입적 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유친적 중복에는 맞장구치기를 포함하여 화자의 의견에 동의나 공감을 표하고 대화에 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발성이 포함되는 반면, 침입적 중단에는 힘이나 우세함을 과시할 의도를 가지고 화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대화차례를 파괴하는 발성들이 포함된다. 물론 대화상대자가 화자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단의 시도와 중단의 성공은 실제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중단은 자주 우월성이나 힘 혹은 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Lakoff, 1990; West, 1984),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힘이 있는 남성들이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힘이나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 지지적,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Anderson & Leaper, 1998; Feldstein & Welkowitz, 1987).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대화의 흐름을 돕는 지지적, 긍정적 중단은 무시하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침입적 혹은 부정적 중단만을 순수한 중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부정적 중단에 의해 대화차례가 성공적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은 성공적 중단으로 불리어진다. 흥미롭게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행된 중단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Case, 1988; McCarrick, Manderscheid, & Silbergeld, 1981; Roger & Schumacher, 1983; West &

Zimmerman, 1983; Zimmerman & West, 1975). 첫째,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자주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사용한다. 둘째, 중단은 두 사람의 동성의 화자들 사이에서는 비슷하게 일어나나 혼성의 쌍에서는 어느 한편이 유의하게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 셋째, 남성들이 여성들에 의해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당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더 많이 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대화시에 주도권이나 우월성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고 힘 있는 남성들이 이러한 유형의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며 남성성을 중단의 중요한 예언자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여성들의 언어패턴은 곧 그들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는 부정적, 침입적 중단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Carli, 1990; Johnson, 1994), 대화의 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녹음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도 있다 (Nohara, 1992). 이와함께 1965년부터 1996년까지 출판된 이 분야의 논문(43개)을 통합분석한 Anderson과 Leaper(1998)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발언권을 가진 화자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효과크기는 대단히 작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서 연구자들은 연구가 수행된 시기에 따라 부정적, 침입적 중단에 미치는 성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와 비

교하여 수학능력이나 언어능력에서의 성차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녀 평등사회로의 변화는 부정적, 침입적 중단에서의 남녀 성차를 완화시키고 심지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화가 진행될 때 중단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대화자의 성보다는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James & Clarke, 1992). James와 Clarke(1993)은 동성간의 대화에서보다 이성간의 대화에서 남성들이 더 많이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보통 동성간의 대화에서는 본인과 대화상대자들이 거의 동등한 정도로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사용하는 반면, 이성간의 대화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발언을 더 많이 침입적으로 중단시킨다. 그러나 통합분석을 실시한 Aries(1996)를 포함한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Dindia, 1987; Kennedy & Camden, 1983; Trimboli & Wakder, 1984)은 동성이나 이성간의 대화에서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사용하는 빈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녀 모두 동성집단에서보다 혼성집단에서 부정적, 침입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Anderson & Balanchard, 1982), 남성들은 동성집단 내에서 자주 지지적 발언을 함으로써 긍정적 중단을 사용한다는 연구도 있다(Smith-Lovin & Brody, 1989). 한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중요시한 Anderson과 Leaper(1998)는 부정적, 침입적 중단에서의 유의한 성차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구성원이 3명 혹은 그 이상일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더 많이 중단시킴으로써 분명한

성차가 확인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이성보다는 동성들 사이에서 중단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을 뿐 아니라(McCarrick, Manderscheid, & Silbergeld, 1981)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Aries, 1996), 특히 1대 1의 대화 상황에서 여성들은 친밀함을 보이기 위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도 있어(Leaper, 1994) 대화상대자의 성이 중단의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현재로서 분명하지 않다.

대화의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화자들간의 친밀도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대화상대자를 더 많이 중단시킬 것이나 친밀한 조건에서의 대화는 개인적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Drass, 1986; Wood & Karten, 1986). 그 예로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보다 부정적, 침입적 중단이 더 적게 사용되며, 중단이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긍정적 중단이 주로 사용된다(Tannen, 1983). 그러나 부정적, 침입적 중단에 관한 17개의 연구를 통합 분석한 Anderson과 Leaper(1998)는 친밀한 정도가 중단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은 본인의 성이나 대화상대자의 성 혹은 친밀도가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 세 가지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 거의 없다. 더욱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지지적

혹은 긍정적 중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못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Smith-Lovin과 Brody(1989)의 분류를 따르되, 대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중립적 중단을 제외하고 두 가지 유형의 중단 즉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하려고 한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남녀 동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녀 모두 대화상대자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는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는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중단을 자제하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으며, 특히 친한 사이에서 남성들은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는 여성일 때 그리고 여성들 역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는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대화의 흐름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 중단도 부정적 중단과 유사하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남녀 모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 대화상대자를 더 편안하게 지각할 수 있으므로 친한 여성 대화상대자에게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특히 친한 사이일 때 여성들은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친밀함의 표현으로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중단

가설 1.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가설 3. 낯선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부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가설 4. 낯선 조건에서 남성들은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친밀한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5. 낯선 조건에서 여성들은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친밀한 조건에서도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긍정적 중단

가설 1.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가설 3. 낯선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가설 4. 낯선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친밀한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자

C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학생들 중에서 친한 동성친구나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과 함께 오게 함으로써 전체 120명이 표집되었다. 실험에서 요구되는 친밀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실험에 불참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분석대상자는 108명(남성=52명, 여성=56명)이었다. 실험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대학생 19.44(SD=1.33)세 그리고 여자 대학생 19.21(SD=1.30)세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학기말 성적에 가산점이 부과되었고 실험은 2003년 9월초부터 약 두 달간 실시되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인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과 친밀도가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본인의 성: 남성, 여성)×2(대화상대자의 성: 남성, 여성)×2(친밀도: 낮선, 친한)의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두 가지 유형의 중단은 Smith-Lovin과 Brody(1989)의 분류를 기초로 중단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화상대자가 화자의 말에 대해 부동의를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주제와 동떨어진 발성을 하면 부정적 중단으로 그리고 청자가 화자에게 동의나 동조를 표하는 ‘음’이나 ‘에’와 같은 발

성을 하거나 화자의 말을 반복하는 발성을 하면 긍정적 중단으로 부호화되었다.

· 부정적 중단의 예

A: 나는 마음껏 댈으면 그냥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실험 해 보고[...]

B: [...] 꼭 같이 살아봐야겠 서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연애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지.

A: 그래도 연애기간 동안에는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

· 긍정적 중단의 예

A: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지하게 될 텐데 돈을 벌 수 있으면[...]

B: [...] 어, 완전히 자립했을 때나 하면 또 몰라도 좋지?

A: 응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 모두 성공한 중단만을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중단은 청자가 화자의 대화를 중단시킨 빈도를 계산한 후 청자가 대화에 참여한 시간(초단위)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계산되었고 다시 분단위로 환산되었다. 처음부터 분단위로 계산을 하면 중단을 나타내는 미세한 발성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값을 초단위로 하면 소수점 이하의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먼저 초단위로 계산하고 다시 분단위로 변환하였다. 또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시간은 전체 대화시간(10분) 동안 대화에 참여한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여 계산되었다.

절차

표집된 실험대상자들은 여덟 개의 조건(낮선 남성-남성, 낮선 여성-여성, 낮선 남성-여성, 낮선 여성-남성, 친한 남성-남성, 친한 여성-여성, 친한 남성-여성, 친한 여성-남성)에 할당되었다. 결과적으로 30개의 낮선 쌍과 30개의 친한 쌍이 구성되었다. 각 쌍의 친밀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점(1점: 전혀 친하지 않다, 5점-매우 친하다) 리커트타입의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친밀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검사에서 1점을 받은 사람들은 낮선 조건에 그리고 4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친밀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정함으로써 27개의 낮선 쌍과 27개의 친밀한 쌍이 확정되었다. 탈락한 6쌍 중 5쌍은 친밀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나머지 1쌍은 실험에 불참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동거문화에 관한 의견조사를 할 것이라고 알린 후에 “대학생의 동거문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주고 5분 동안 읽게 하였다. 토론 주제로 사용된 짧은 글이 남성적 주제인지, 여성적 주제인지 아니면 중립적 주제인지를 대학생들에게 평가하게 하였으며, 92명의 응답자 중 85명(92.3%)이 중립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토론 주제가 성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실험대상자들이 주어진 글을 충분히 읽었는지를 확인한 후 10분 동안 두 사람이 토론하게 하였다. 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는 실험대기실에 머물렀고, 토론 내용은 실험대상자들의 양해를 얻어 녹음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축어록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실험목적에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실험보조자에 의해 중단빈도가 계산되었다. 두 평정자간의 중단빈도 평정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부정적 중단은 .94, $p < .001$ 그리고 긍정적 중단은 .95, $p < .001$ 로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실험 종료 후 실험대상자들에게 사후 실험보고를 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연구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결 과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가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된 아홉 개의 가설(부정적 중단-5개: 긍정적 중단-4개)들은 대비분석¹⁾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1. 부정적 중단

먼저 부정적 중단과 관련한 다섯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에 따른 부정적 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표 1의 결과로써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들은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2도 기각됨으

1) 대비분석: 대표적인 사전검사 혹은 계획비교 방식으로 전반적 검증의 내용이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연구자가 분명한 논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사용된다. 전반적 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더라도 대비분석에서는 특정한 집단평균들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로써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라 부정적 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낯선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부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3은 $F(1,106)=13.494, p<.001$ 로서 지지되었다. 표 1에 의하면, 낯선 조건에서는 평균 $1.35(SD=1.12)$ 의 비율로 부정적 중단이 일어난 반면, 친밀한 조건에서는 평균 $2.35(SD=1.65)$ 의 비율로 부정적 중단이 일어나 본인과 대화상대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더 많은 부정적 중단이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가설 4의 낯선 조건에서 남성들은 대

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친밀한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F(1,24)=3.388, p<.05$ 로서 지지되었다. 표 1을 기초로 해석해보면, 남성들은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는 평균 $1.90(SD=0.72)$ 의 비율로 부정적 중단을 사용하나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는 평균 $3.44(SD=2.85)$ 의 비율로 부정적 중단을 사용하였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남성들은

표 1.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에 따른 부정적 중단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 본인의 성 | 대화상대자의 성 | 친밀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남성 | 남 | 낯선 조건 | 16 | 1.45 | 1.20 |
| | | 친한 조건 | 16 | 1.90 | 0.72 |
| | | 전체 | 32 | 1.67 | 1.00 |
| | 여 | 낯선 조건 | 10 | 1.03 | 0.98 |
| | | 친한 조건 | 10 | 3.44 | 2.85 |
| | | 전체 | 20 | 2.24 | 2.41 |
| | 전체 | 낯선 조건 | 26 | 1.29 | 1.12 |
| | | 친한 조건 | 26 | 2.49 | 1.95 |
| | | 전체 | 52 | 1.89 | 1.69 |
| 여성 | 남 | 낯선 조건 | 10 | 1.45 | 1.29 |
| | | 친한 조건 | 10 | 2.30 | 1.16 |
| | | 전체 | 20 | 1.87 | 1.27 |
| | 여 | 낯선 조건 | 18 | 1.38 | 1.08 |
| | | 친한 조건 | 18 | 2.18 | 1.45 |
| | | 전체 | 36 | 1.78 | 1.33 |
| | 전체 | 낯선 조건 | 28 | 1.41 | 1.14 |
| | | 친한 조건 | 28 | 2.22 | 1.33 |
| | | 전체 | 56 | 1.81 | 1.29 |
| 전체 | 남 | 낯선 조건 | 26 | 1.45 | 1.21 |
| | | 친한 조건 | 26 | 2.05 | 0.91 |
| | | 전체 | 52 | 1.75 | 1.10 |
| | 여 | 낯선 조건 | 28 | 1.26 | 1.04 |
| | | 친한 조건 | 28 | 2.63 | 2.10 |
| | | 전체 | 56 | 1.94 | 1.78 |
| | 전체 | 낯선 조건 | 54 | 1.35 | 1.12 |
| | | 친한 조건 | 54 | 2.35 | 1.65 |
| | | 전체 | 108 | 1.85 | 1.49 |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라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낮은 조건과 친밀한 조건 모두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다시 말하

대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에 따른 긍정적 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 2의 결과로써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은 $F(1,106)=13.633, p<.001$ 로서 지지되었다. 여성들은 평균 3.94 ($SD=3.52$)의 비율로 긍정적 중단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평균 1.85($SD=2.10$)의 비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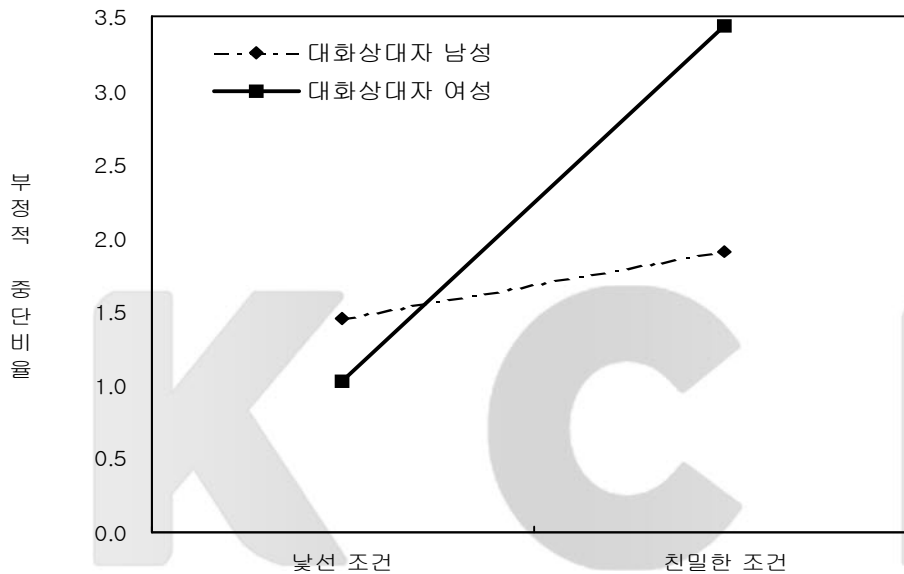


그림 1. 본인의 성이 남성일 때 대화상대자의 성과 친밀도에 따른 부정적 중단비율에서의 차이

면 여성들은 낮은 조건과 친밀한 조건 모두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긍정적 중단

긍정적 중단과 관련된 네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정적 중단에서와 동일하게

긍정적 중단을 사용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F(1,106)=4.688, p<.05$ 로서 지지되었다. 즉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는 평균 3.57($SD=3.52$)의 비율로 긍정적 중단이 일어난 반면,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는 평균 2.25($SD=2.41$)의 비율로 긍정적 중단이 일어

나 남녀 모두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화자들 사이의 친밀한 정도에 따라 긍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낮은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 그리고 친밀한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4는 친밀한 조건에서만 $F(1,52)$

$=7.032, p<.05$ 로서 지지되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는 평균 $1.97(SD=2.91)$ 의 비율로 긍정적 중단이 일어난 반면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는 평균 $4.59(SD=4.26)$ 의 비율로 긍정적 중단이 일어나 남녀 모두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 유의하게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으며,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표 2.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에 따른 긍정적 중단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 본인의 성 | 대화상대자의 성 | 친밀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 남성 | 남 | 낮선 조건 | 16 | 2.03 | 1.96 | |
| | | 친한 조건 | 16 | 1.58 | 1.91 | |
| | | 전체 | 32 | 1.80 | 1.92 | |
| | 여 | 낮선 조건 | 10 | 1.29 | 1.58 | |
| | | | 친한 조건 | 10 | 2.58 | 2.98 |
| | | | 전체 | 20 | 1.94 | 2.41 |
| | | 전체 | 낮선 조건 | 26 | 1.75 | 1.83 |
| | | | 친한 조건 | 26 | 1.96 | 2.37 |
| | | | 전체 | 52 | 1.85 | 2.10 |
| 여성 | 남 | 낮선 조건 | 10 | 3.36 | 1.76 | |
| | | 친한 조건 | 10 | 2.59 | 3.88 | |
| | | 전체 | 20 | 2.97 | 2.96 | |
| | 여 | 낮선 조건 | 18 | 3.24 | 2.26 | |
| | | | 친한 조건 | 18 | 5.71 | 4.51 |
| | | | 전체 | 36 | 4.48 | 3.73 |
| | | 전체 | 낮선 조건 | 28 | 3.28 | 2.06 |
| | | | 친한 조건 | 28 | 4.60 | 4.49 |
| | | | 전체 | 56 | 3.94 | 3.52 |
| | 전체 | 남 | 낮선 조건 | 26 | 2.54 | 1.96 |
| | | | 친한 조건 | 26 | 1.97 | 2.81 |
| | | | 전체 | 52 | 2.25 | 2.41 |
| 여 | | 낮선 조건 | 28 | 2.55 | 2.23 | |
| | | | 친한 조건 | 28 | 4.59 | 4.26 |
| | | | 전체 | 56 | 3.57 | 3.52 |
| | | 전체 | 낮선 조건 | 54 | 2.54 | 2.08 |
| | | | 친한 조건 | 54 | 3.33 | 3.83 |
| | | | 전체 | 108 | 2.94 | 3.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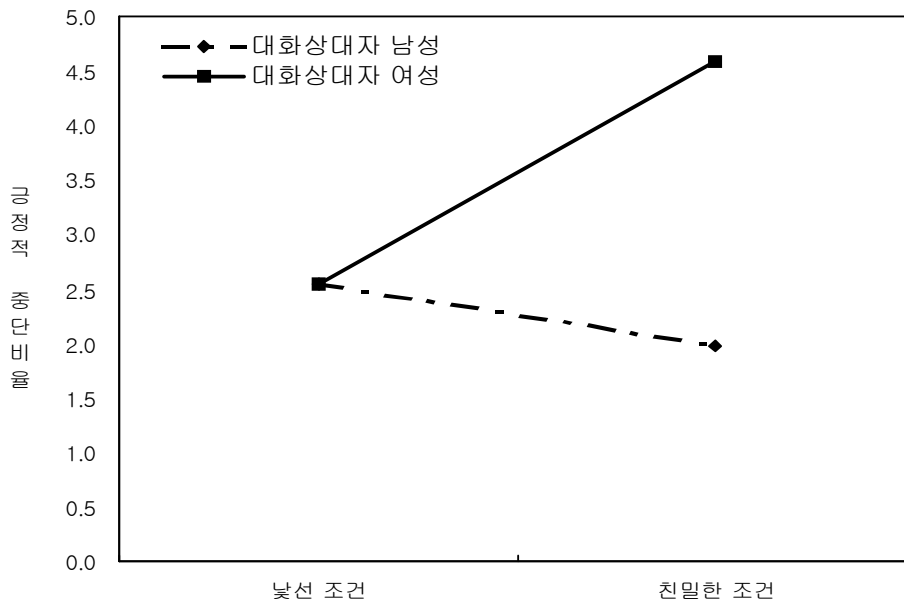


그림 2. 친밀도와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른 긍정적 중단비율에서의 차이

논 의

이 연구는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의 효과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실험대상자들(108명: 남성 52명, 여성 56명)을 여덟 개의 조건(낮선 남성-남성, 낮선 여성-여성, 낮선여성-남성, 낮선 남성-여성, 친한 남성-남성, 친한 여성-여성, 친한 남성-여성, 친한 여성-남성)에 할당하고 실험실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10분 동안 서로 대화하게 하였다. 부정적 중단과 관련하여 설정된 다섯 개의 가설과 긍정적 중단에 관해 설정된 네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2×2의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대비분석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과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낮선 조건에서 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부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고 가설 4는 남성들이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더 많은 부정적 중단을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낮선 조건이나 친밀한 조건 모두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가설 5는 기각되었다. 한편 긍정적 중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남으로써 가설 1과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낮선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고 낮선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여성

일 때보다 남성일 때 그리고 친밀한 조건에서는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친밀한 조건에서만 지지되었다. 즉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은 물론 남성들은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기각됨으로써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 중단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1990년대(Johnson, 1994; Carli, 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성과 여성 모두 대화시에 유사한 정도의 부정적 중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힘이 강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을 더 많이 중단시킨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적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Lakoff(1990)의 제안처럼, 부정적 중단이 우월성이나 지위와 연결되어 있다면 남녀 평등사회에서는 성에 기인한 부정적 중단에서의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남녀 평등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중단은 낯선 조건에서보다 친밀한 조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남성들은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동성간의 대화에서보다 이성간의 대화에서 남성들이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

용한다는 James와 Clarke(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물론 화자들 사이의 친밀한 정도가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Anderson과 Leaper(1998)의 연구나 친밀한 조건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보다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Drass, 1986; Wood & Karten, 1986) 혹은 남성들로만 구성된 집단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더 빨리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남성 대화상대자에게 더 많은 부정적 중단이 사용된다는 Aries(1996)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남자 대학생들은 그들의 우세한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친밀한 여성 대화상대자를 더 많이 중단 시킴으로써 아직도 성역할 고정관념적 언어 패턴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예상한 대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여 Anderson과 Leaper(1998)나 Aries(1996)의 연구와 일치함으로써 긍정적 중단은 전형적인 여성적 언어패턴임이 분명하였다. 또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남녀 모두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은 긍정적 중단의 주 사용자인 동시에 긍정적 중단을 유발하는 대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화상대자가 동성인 집단에서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Smith-Lovin과 Brody(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친밀성 그 자체는 긍정적 중단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친밀한 조건에서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남으로써 친밀성 여부는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이 확인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이 남성이거나 대화상대자가 남성일 때는 본인이 여성이거나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보다 긍정적 중단이 더 적게 사용될 뿐 아니라 친한 사이에서도 대화상대자가 여성일 때보다는 남성일 때 긍정적 중단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규명한 본인의 성이나 대화상대자의 성 혹은 친밀도 이외에도 대화의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많이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수행되었으나 Nohara(1992) 같은 연구자는 대화의 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 알려준 상황을 실험 상황으로 그리고 녹음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을 자연상황으로 규정하고 연구한 결과, 실험상황에서는 남성들이 그리고 자연상황에서는 여성들이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마도 대화의 내용이 녹음되는 실험실 상황에서는 개인의 예절바른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서 예절바른 행동을 중요한 덕목으로 학습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적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험상황을 다양하게 조작하거나 자연상황에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결과가 제시될 지도 모른다. 집단의 구성원 수 또한 중단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단지 두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연구하였으나 Nohara(1992)나 Anderson과 Leaper(1998)의 주장대로 부정적 중단이 개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면 일대일의 상호작용에서보다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단의 크기를 다양

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화시간의 길이에 따라라도 대화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0분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화를 분석하였으나 대화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특성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화시간을 다양화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Basow와 Rubenfeld (2003) 같은 연구자들은 성보다는 성역할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성역할은 물론 성격특성이나 불안수준과 같이 대화의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대화에서의 중단에 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정적 중단만을 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긍정적 중단을 함께 연구하였고,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인의 성과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의 효과를 실험실 상황에서 동시에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순옥, 유경희 (1996).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21-33.
- 류경희 (1996).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의 관련변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 박성연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90.
- 박창원, 김창섭, 전해영, 차현실 (1994).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태학사.

- 송성자 (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송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휘숙 (2002). 여성심리학. 서울: 박영사.
- Anderson, L. R., & Blanchard, P. N. (1982). Sex differences in task and social-emotional behavior. *Basic and Applied Psychology*, 3: 19-49.
- Anderson, K. J., & Leaper, C. (1998). Meta-analyses of gender effects on conversational interruption: Who, what, where and how. *Sex Roles*, Vol. 39, Nos. 3/4, 225-252.
- Aries, E. (1976). Interaction patterns and themes of male, female and mixed groups. *Small Group Behavior*, 7: 7-18.
- Aries, E. (1996). *Men and women in interaction: Reconsidering the diff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sow, S., & Rubinfeld, K. (2003). "Troubles talk: Effects of gender and gender-typing. *Sex Roles*, Vol. 48, Nos. 3/4, 183-187.
- Carli, L. L. (1990). Gender, language, and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41-951.
- Case, S. S. (1988). Cultural differences, not deficiencies: An analysis of managerial women's language. In S. Rose & L. Larwood (Eds.), *Women's careers: Pathways and pitfalls*. New York: Praeger.
- Dindia, K. (1987). The effects of sex of subject and sex of partner on interrup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3, 345-371.
- Drass, K. A. (1986).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on convers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294-301.
- Feldstein, S., & Welkowitz, J. (1987). A chronograph y of conversation: In defense of an objective approach. In A. W. Siegman & S. Feldstein (Eds.), *Nonverbal behavior and communication* (2nd ed., pp. 435-499). Hillsdale, NJ: Erlbaum.
- James, D., & Clarke, S. (1992). Interruptions, gender, and power: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In K. Hall, M. Bucholtz, & B. Moonwomon (Eds.), *Locating power: Proceedings of the Second Berkeley Women and Language Conference*. Berkeley, CA: Berkeley Women and Language Group.
- James, D., & Clarke, S. (1993). Women, men, and interruptions: A critical review. In D. Tannen (Ed.),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C. (1994). Gender, legitimate authority, and leader-subordinate convers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122-135.
- Kennedy, C. W., & Camden, C. T. (1983). A new look at interruptions.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47, 45-48.
- Lakoff, R. T. (1990). *Talking power: The politics of language in our lives*. New York: Basic Books.
- MacCarrick, A. K., Manderscheid, R. W., & Silbergeld, S. (1981). Gender differences in competition and dominance during married-couples group therap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164-177.
- Nohara, M. (1992). Sex differences in interruption: An experimental reevaluatio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Vol. 21, No. 2, 127-146.
- Roger, D. B., & Schumacher, A. (1983).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dyadic conversational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700-705.
- Smith-Lovin, L., & Brody, C. (1989). Interruptions in group discussions: The effects of gender and group compo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424-435.
- Tannen, D. (1983). When is an overlap not an interruption? One component of conversational

- style. In R. J. DePietro, W. Frawley, & A. Wedel (Eds.), *The first Delaware Symposium on Language Studies*. Newark, D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 Tannen, D. (1994). Interpreting interruption in conversation. In D. Tannen (Ed.), *Gender and discourse*. New York: Oxford.
- Trimboli, C., & Walker, M. B. (1984). Switching pauses in cooperative and competitive convers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297-311.
- West, C. (1984). When the doctor is a lady: Power, status and gender in physician-patient encounters. *Symbolic Interaction*, 7: 87-106.
- West, C., & Zimmerman, D. (1983). Small insults: A study of interruptions in cross-sex conversations between unacquainted person. In B. Thorne, C. Kramarae, & N. Henley (Eds.), *Language, gender and society*. Rowley, MA: Newbury House.
- Wood, W., & Karten, S. J. (1986). Sex differences in interaction style as a product of perceived sex differences in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41-347.
- Zimmerman, D. H., & West, C. (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s in conversation. In B. Thorne & N. Henley (Eds.),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 Newbury House



Interruptions in conversations: The effects of gender of speakers and their partner and familialities

Hwee Sook Jang

Young Im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ender of speakers and their partner and familiarity on two types of conversational interruption(negative and positive) in the experimental situation. 108 college students were allocated to 8 groups using a 2x2x2 factorial design and 8 hypotheses were formed. Planned analysis revealed negative interruption was occurred more often in the familiar condition than strange one. And males used negative interruption more often to the female partner in the familiar condition. For positive interruption, as predicted females used positive one more often than males and positive interruption were more used to the female partners. Also in the familiar condition more positive interruptions were used to the female partners than male ones.

Keywords: conversation, negative interruption, positive interruption